

<목회실에서>

감사합니다

이창환 목사

참으로 신기한 우연처럼 와싱턴인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웨슬리신학교에 도착해서, 학교 아파트에 처음 이삿짐을 풀어놓던 날, 잠시 학교를 둘러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 산책하던 중, 저보다 먼저 웨슬리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주일예배 드릴 곳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 한 번 와보라는 그분의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온 것이 와싱턴인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니, 당시 담임목사님이던 김영봉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 혹시 발런티어로 사역을 조금 도울 수 있겠냐는 청을 하셨는데, 그 청에 응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지난 7년 간 참으로 꿈과 같은 목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았던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제게 잊을 수 없는 것은 새 가족을 영접하는 바나바 사역입니다. 발런티어로 처음 사역의 기회를 얻고 제일 먼저 주어진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 역시도 새 가족이었고, 저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도 없었던 터라 저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제가 새 가족을 영접한다는 것이 왜 이리 어색하던지요. 새 가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배당 앞 로비에 서 있다가, 다른 교인들로부터 “교회 처음 왔느냐”며 되레 제가 새 가족 카드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처음 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공감하며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마음을 쏟았던 청장년사역, 제게는 참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사역을 생각하면 마음이 됩니다. 와싱턴인교회 안에 청장년들의 신앙공동체를 세워보자며, 30대와 40대 또래들과 함께 뭐래도 어떻게 해볼려고 낮이고 밤이고 만나 대화하고 이리 저리 힘쓰며 땀 흘렸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고, 모처럼 어린 시절 교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듯,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년 동안 제자반을 맡은 것은 제 감사의 제목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게 될 평생의 목회에 목회철학이 그로부터 준비되었고, 성경을 보는 중요한 해석적 맥락을 갖추는 기회였습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와싱턴인교회와 교우 여러분께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으며 자란다고 들었는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며 정말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